問題中에잇는 京城府汚物處置

일부부민간의대불평

경성삼십만시민이 매일가려 배설(排泄)하는분요(糞尿)사십오만석과 기타쓰레기 이십만관등의오물(汚物)을싸어두는장소는종래 시외광희문(光熙門) 밧에잇섯스나 그설비의 불완전과장소가 뎍당치못함으로 부터이는 불편함은 물론하고 그근처주민의 이에대한불평과 원청도또한 적지안은바잇서 당국인경성부나 일반주민간에 여러해동안을두고 설비를 완전히하느니그장소를 다른곳으로 옴기느니하야 문뎨가자못분운하야 왓섯스나 원래부터 언행(言行)이일치치못한경성부는

우금까지 이에대한용단(勇斷)을내리지못하고그대로끌려왓섯는데얼마전부당국이명년도예산편성(明年度豫算編成)을압헤두고이오예물(汚穢物)싸는장소를명년안에는긔어히옴길것가티청언하야이를들은광희문밧일대주민은실로깃버함을마지아니하며 다른시내주민도 이번만은 그설비를 완전히하야써소위조선의 수부도시(首府都市)인경성으로서 집집이 변소가넘치고 쓰레기통이넘치는 추태를보히지아토록하기를 원하야 마지안는터인바 이제부당국자는 아즉 그장소와계획에대하야는 발표할시긔가아니라하고

절대비밀 에부처광희문밧을제외한 다른 군부(郡部)의주민들은 이더러운오예물 싸는데가혹은자긔네곳으로도라오지나아니할가하는불안을이르키는중이나 이문뎨는 경비(經費)와 교통(交通)과 위생(衛生)체면(體面)등을 충분히 고려할 문뎨임으로 경성부로서도 신중히생각을 거듭하는모양인즉 추측컨대 일본기타제외국도 시의현재밧법과 기타혹은 긔차(汽車)를리용하며 혹은수리(水利)혹은뎐차(電車)등의모든교통긔관을 리용하야 시가와상당한거리를 떠러저잇는 디방으로 옴김이 뎍당한줄로 권형되는모양으로 확실한것은모르되 수리와뎔도를 리용하야 각디방으로운반하는 일변시외 뚝섬(纛島)방면이 또한유력한 후보디(候補地)로권형되는 모양이다

人家稀少한 纛島方面이 조흘것갓다고 藤本衛生技師 談

이상에대하야 등본(藤本)위생기사는 모든것을부인하며 말하되『이문뎨는큰문뎨인즉 경홀히커단할바가아니나 하여간될수잇는대로 적은경비로써 완전한것을꾀하기에 로력하는 터이며방금시내에서 일년동안에 배설되는 오예물은 대소변이 사십오만석이요 쓰레기가 이천만관가량인데 그중 대소변 이십만석을팔어오만원이라는수입이잇슴니다 이런것저런것을 참고하야하라니까매우문뎨가어려워집니다 하여간 예산을보아할일인즉 그때까지 기달려주시되내생각으로는 금년에한번 잇섯든실례(實例)를보아 뎔도와 기타의교통긔관을 리용하야 디방으로보내는 일변뚝섬등디의 인가가희소한곳에 갓다쌋는것이 조흘줄로압니다』하더라

寶城小作人 小作料不納同盟

군당국에진정서를데출하고 그의해결을기다리고잇는중

젼남보성군(寶城郡)에잇는군산부송본(群山府松本)이라는일본사람의 소유뎐답에대한 소작료감뎡이 너머가혹하야 일반소작인의 매우소란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지난 십사일에그소작인중박상돈(朴尙敦)외삼십여명이 당디군텽과 경찰서에탄원을하엿다는데 그탄원의 내용은 당초그토디 약천여두락이부산부 길긔종일(釜山府吉崎宗一)의 소유로서 해마다늘어가는소작료가 칠팔년동안에 배이상이늘어서 소작인의고통은실로말할수업섯스나 쌍을 떠나서살수업는소작농민들은눈물과한숨을참아가며경작하야오든바금년가을에 길긔의대리인이 처음에소작료를감뎡하더니다시군산송본의대리인이 소작료를또감뎡하고 또다시 동양척식회사대리인이묘사하야이중삼중의감뎡을밧는 소작인들은 공포에싸히여 대단우려하엿슬뿐 아니라 소작인에게는 일언반사의 의론이업시 저의마음대로 긔록하여가매 소작인들은 맹목으로설러다니며 얼마를잡어갓는지 도모지알길이 업섯다가 이제군산송본농장(群山松本農場)이라인쇄한소위 소작료납부 통지서를뜨더본즉 소작인마다 권수확을다준대야 오히려소작료가 부족하겟는바 금년농작은 한재풍재충재를다겨거 작년보다 삼할이상이감수 되엿슴에불구하고 도로혀소작료는 작년보다 삼할이상을증가하엿스니 그와가튼 악덕한디주와는 도저히 즉접교섭이불가능하오니 백성을 위하야존재한 관텽에서 관텽을 의지하야 생존하는농민을 불상히넉이여 원만한해결이되도록 하여지이다하며 문뎨 해결전에는소작료를 불납하기로 총동맹을하엿다더라(보성)

對策會議開催

군수와경찰서장이

송본(松本)디주와보성(寶城)소작인간 소작쟁의사실은 별항과갓거니와 소작인들의 탄원서를밧은군당국(郡當局)에서는 김(金)군수부견(富堅)서댱주입진목(眞木)경찰서장송포(松浦)경부제씨가 보성군텽 회의실에서장시간구수회의를하야송본디주에대한선후책을결뎡하엿다더라

朴白庵追悼禁止

십육일종로서에서돌연히

부내의유지제씨가 발긔한 백암박은식(白庵朴殷植)씨의추도회(追悼會)는 그동안여러가지로준비중에잇든바 작십육일에이르러돌연히 종로경찰서로 부터추도회를 금지 식히엿다더라

醴泉衡平分社

진용을새로정제

경북례천 형평분사(醴泉衡平分社)는그사원수가 근읍인안동(安東)이나영주(榮州)등디보다멧배나 만흠으로 비교뎍형평운동이 잘진뎐되여 장차운동의중심이 되려하든바 지난팔월에일부반동자에게습격을당한후사원들은사면에리산하야각각신명을도모하는일방사법당국의활동으로사건을이르킨수모들을방금예심(豫審)에부처엇중이심리를진행하고잇는중이려함은 이미보도 된바어니와이는풍운이첩석되엿슴으로흐터든사원들은차차로모히어다시 사무를정돈하야일층맹진하고저 하는마음으로지난십삼일오건십시반부터 읍내 김원준(金元俊)의집에서 림시총회를개최하엿는데 회중이오십여명에 달하엿스며 림시의장(議長) 김도련(金道天)씨의 사회로 모든의사를진행한바지난번

사건이후 안동지사(安東支社)관내 부당한경비구백여원(九百餘圓)중 례천 분사의부담액 삼백오십여원이 아즉판출(辦出)되지 아니하엿슴으로 이에대한 관상토의가 잇섯스며 김도련씨의 피가넘치는듯한 경과보고와화성회(火星會)김원진(金元鎭)씨로부터례천사건의현상에대한소감담이 잇섯스며지난번 사건으로말미암아

치료비와 기타모든손해가 만히잇섯는바 이것은후일재관이 맛난후그폭행자들에게 물릴것이요 약하고가난한사람들은 다가려 일치단결하야 우리의피를 글거먹는놈들을다 배제하여야 된다는의미깁흔말로 임원선거를 아래와가티행한후 동五시 이십분에 무사히 폐회하얏다더라(례천)

分社長金三伊 副分社長張福俊 總務朴順伍 財務金奉伊 書記朴應幸 評議員金三洙外二十二人

三月會臨時會

확장책을토의

동경에잇는 조선녀자의 사상단톄인 삼월회(三月會)에서는 지난구일 하오다섯시에 부하고뎐뎡잡사곡(府下高田町雜司谷)사백구십칠번디 그회관안에서 림시총회를열고 회세확장에 대하야 여러가지토의가잇슨후 아래와가티 임원을 선거하엿다더라 (동경)

丁七星 李賢卿

總代會後의紛糾 莞島海苔組合

總代多數는辭任願提出

군수가조합장이된것이동긔 문뎨가확대되야여론이비등

젼남완도군해태어업조합(全南莞島郡海苔漁業組合)은대정륙년십일월이십이일에창립된완도군해태수산조합(海苔水產組合)으로 대정십년십일월에 변경하야 사업진뎐된결과 금년사월현재조합원이 사천팔백명이나되고 자산(資產)이 삼만원이나되는중 지난십이일에 동조합총대회의(同組合總代會議)가잇슨후동회의가 불법으로되얏다 하야문뎨가분운하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동조합총대이십이인중 임재영(任在穎)김홍렬(金興烈)리석우(李錫佑)정찬주(鄭贊周)김병련(金炳連)오씨가 동조합리사황권팔(黃權八)군의데안인『군수를 조합장으로할일』『군서무주임을감사(監事)로할일』을 반대하엿든일이잇섯든바 군당국에서는 금번총대는 도텽(道廳)의인가업시 회의를개최하엿스니 조합규약에의하야무효라선언한후 조합

총대회의 일자를 십일월십이일로다시뎡하고 그동안 권긔반대하든 오씨를 쌔여노코 남어지 십칠명만 도에대하야 인가수속을 행하얏다가 데뎡이 되는 지난십이일오건열시에 그조합에서 데삼회뎡긔총회를 열고 리사황권팔군의 사회로 도기수송택신태랑(道技手松澤新太郞)과 당군서무과장(當郡庶務課長)과 기타계원 사오인과 경관등이렬석하고 의사를진행하라 할쌔에

신문긔자 들도립석하엿섯는데 황리사와 서무과장이 귀속말을하더니 긔자석에 대하야 방청을 거절한다함으로 리유를반문하는등 힐난을하다가 자리를피하야 주엇는데 그후경과를들으면 의사를진행하기전에 리사가선언하기를 사항을 결의할쌔에동의、재청、삼청이잇스면개의할수업는것이 현대세계 공통뎍회의의규측이니 제군은미리 이것을 알어둘필요가

잇다하고 의사진행에 들어가서 조합과는 관계가업는도기수와군서무과장(郡庶務課長)이 발의하면 의장은그의견이좆소하는 소리만지르고섯다가 역원(役員)선거의건에 들어서는 그권날밤에 리사의주최인 간담회에서 교사를바든 총대세사람이 조합장은 군수로합시다하는 발의가 잇기를 기다리다가송택기수가조합장은군수로하는것이좆소하닛가 총대삼인은 그의견동의햇소!재청이오!삼청이오!한쪽 의장은이제는

개의할수 도업시군수가 조합장이되얏슴니다하고 절뎡하고 그다음 리사개선에들어서도 역시송택기수가 잉념하자는 발긔대로 절뎡하고 조합장의례사가잇슨후 산회하야 도기수와 총대위로연을 그묘리점에 열고 삼미선(三味線)과 홍타령으로 의일오건두시경에 헤여젓다더라

問題擴大

여론이분운하다

별항과가티조합회의가맛이나자 이소문을들은박인선조경래김상석(朴仁善趙敬來金商奭)삼씨가 조합원대표로 십삼일에 리사를방문하고 약간의질문을한후 동일오건 열한시경에 사표를데출하얏다는데 각총대가 계속하야항의서를 데출하며 일방으로는디방여론을 일으켜 민중의각성을줄계획이라하며 문뎨는 점점확대될모양이라더라

辭職理由와 善後會議

리사의위협으로 회장은수라장돼

동조합회의가불합법으로되얏다하야 결국총대십칠명중에 십사인이 사임을하얏는데 사임한총대는 지난십삼일밤에리태성(李泰成)씨의집에모히여 선후책을강구하고자하든중 리사 황권팔군이 돌연히참석하야 회장을문란케하며 섯명하기를『내가금번 리사에 재임운동을한것은 이제부터 삼개월전에 군수의말이『김상근(金商瑾)과박로훈(朴魯勳)량군이 이번 리사개선긔에 림하야 리사가되고저하니 주의하라』하기에 나는 도에대하야 적극뎍 운동을한결과 도기수송택군이 본인의 재임을주장한것이다』하며또위협뎍으로총대석을 억압하엿다는데 그내용은 『이번총대가 총사임서를데출한것은 총대의자발이 아니라엇던자의 선동에쏠린것으로 인뎡하고 이것은발생당시에 경찰에의뢰하엿스니 발각되는자는 상당한 처벌을당할줄안다』함으로회장은 모다흥분되야 수라장이되얏다가 경관의 제재로진정되얏는데 총대의사임한 리유는다음과갓다더라(목포)

一、總代會議方式에關한件 總代會는組合의最高議決機關인實地議決은總代의意思에依치안코道技手及附屬의左右에依한것

一、理事黃權八에關한件 十二日總代會議時秘密事項이잇다하야組合員及記者等에入場을不許한다하더니警官及道技手郡屬等으로하여금議事를左右케한것은民衆을欺罔하는黑幕이엇슴으로認한다此는徹底히調査處置할것

一、全南漁業組合聯合會에加入에關한件 加入하기로하고會費五百圓을負擔한것은當組合으로서郡聯合會의二重監督을受할에不拘하고聯合會監督外지要求하는것은大大不可라認함

一、組合長選擧에關한件 郡守로서組合을監督함을不拘하고組合長에就任케하는것은不合理할뿐아니라組合은組合員이管理하는것이事理의當然임으로此는積極的으로辭案할것

問題만튼 黃海社事件公判

금십칠일해주디방법원에서

지금으로부터 약삼년전 즉대정십이년여름에 홍수로인하야 조선엔디가 물속에 잠기엇슬쌔에 해주군추화면 화양강(海州郡秋花面花陽江)도 례년에보지못하든물이범람하야해주(海州)연백(延白)등뵐머의 수천뎡보의 토디가 싯벌건물속에잠기여 수십만석의곡식이 다써어서 그곳농민들은 먹을것을 구하지못하야 살수가 업게되매 산지사방하야 이곳저곳에 의식을구하게 되엿든그 가련한정상은

이제다시 상상하기가무서울만치 처참하얏든것이 다그러한것은 지금으로부터 약십년전에 선만개척 주식회사(鮮滿開拓株式會社)라는데이동척(第二東拓)이라고일홈이놉흔 그회사에서 황해사(黃海社)를조직하야황해도내의토디를전부자긔의수중에 너홀작뎡으로위선 연백해주량군의토디를사는 동시에 그곳간사디(干潟地)를

개척코저 수백만평의토디를 매부하야 화양강(花陽江)하류에 약이백만원의 자금으로 데방공사를 착수하야 데규모뎍으로그강을가루질러막든바수문을 극히적게하야 그강의물이다 배설되기까지는약이십사시간을 허비할만치되얏는바지난홍수가 그만흔물이 일시에 쌔지지못하고

연변전답 에침범하얏든것이 그와가티되야 그관계디주 조선인수천명과수만소작인들은 당시에크게분긔하야자못문뎨가 평창하얏든바 지난겨울에 동디주대표민병세(閔丙世)등이해주

中國人의巨富 同順泰의今日

벌여만원재산가의처디로 채무가구십여만원의다액에

부불백년(富不百年)이오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하는비로부터 면하야 나려오는일어(諺語)이다 이에대한 물뎍증거(物的證據)는 우리가 다가티 력력히보고듯는바이니 또여러말을 허비할필요가 업스나 최근시내에 일목요연히 우리눈에 나타난사실이잇스니그는

수십년 전부터 조선을 동하야 모르는사람이 업슬만치 부명이 자자하든 동순태(同順泰)주인 담걸생(譚傑生)이라 동순태주인은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에 조선이중국상인의 활무대라는 소문을듯고 조선으로왓스나 별로가진것이

넉넉지 못하매 자연여러가지의 곤난을 면치못하얏다그 눈물과 설음으로 그럭저럭고국리하야 그는엇절수업시 중국인의 가장하등의 상업인아가위장사를 시작하야 다방골(茶房町) 갈골(武橋町)등디의화류촌으로 도라다니면서 아가위팔기를시작하엿다 만리타국에 의탁할사람이라고는

그림자 도업시나와서 보니처음자긔가 상상하든 바와는 판이하고 사려나갈길은 바이업서서마춤내『아가위』궤작을집머지고 이집저집으로도라다니면서사주기를 애걸복걸하는 마음은못업는타국의서름을늣기게되엿다

百萬圓卒富 수년동안에되얏다

을그리우며 쓸쓸한생활을 하야오든담걸생에게는 천재일우의조흔기회가왓스니 그것은 중국으로부터원세개(袁世凱)가외교관으로조선에오게되는것이다 원씨가조선에오자 풍마우세의 형세로조최히지내오든중국상인들은드디어상권의세력을잡게되는동시에

담씨도 이때에비로소습합을펴게되엿다 그리하야그는동순태라는상호로상업을개업하게되매 그세력이일취월장하야 불과수년에동순태명의로지폐(紙幣)까지발행하야 조금도거릿김업시사유하게되매 그때나 이때나 살기에죽을

지경인 조선사람들은 집을잡힌다 하야 동순태의발행하는돈을어더쓰게된후에 그집과그쌍을동순태에드리밧고 마는통에동순태는어느듯경성에 쌍재안가는뻐여만원의재산가가되엿다

米豆에失敗 더모흐랴다가

모흐면모흘사록 더 모흐고십고 재흐면재흘사록 더재흐고십허 수년전부터는 인천미두취인(仁川米豆取引)을시작하야 불과이삼년동안에 근백만원의 부채를지게되어서 주야로심초사하게 되엿다 그러나 한번기우러지기시작한 동순태살림살이는 개다리를 녓듯 시시각각으로 틀려도라가기시작하매 각처에 여즐업키듯한 채무를외매여 나아가기에 도모지 정신을 차릴수업시되엿다

將來는奈何? 오늘날을회상하는

이와가티되매각은행에서도권과가티 신용을하여주지 안는고로 채금중개인을 구하기에 열중하게되어 시내서린동(瑞麟洞)칠십오번디진창수(陳昌洙)라는사람을중간에넛코 식산은행에자긔총재산을 전부던당삽히고 구십여만원의 채무를 정리하고자로력을하엿스나

그것도 역시뜻과가티되지안허서 맛츰내 그일은파렬되고 고마는고로 당장초미에 급한채무오만원을 위선 삽고자 권긔진창수를 숫간에넛코 한일은행에 근더당을잡히고 오만원을 엇게되엿다거지가거지에게구걸

한다는 격으로오만오천원을어드러한것이결국푹만오천원을갑게되어 일만원을 엇게되엿문도모르고 생으로 무려노케되엇스니 자연이것저것으로 마음이옷업시 상하는중에서 설상가상으로 그와가튼일이 또생겻슴으로 그는부득이 진창수를사긔횡령죄로시내종로

경찰서 에고소를데긔하야 그동안취됴를마치고일건서류만 경성디방법원검사국으로넘어갓다는데 담씨의총재산이백여만원에불과한데 그채무는 약구십여만원의 거액에이르러서 그장래의사려갈길이 망연함으로 담씨는최근에와서 수심이가득한 얼골을

첩의집 에숨기어두고오직 과거의력사를 무료히회상할 뿐이라더라

無理亂暴한驛長

아모과실도업는인부두명을 함부로싸려서중상을내엿다

被害者는方今告訴提起

조선텰도경남선(朝鐵慶南線)북마산역장도변류길(驛長渡邊柳吉)과 조선텰도출장소 운수계에잇는 산하수치(山下秀治)는 지난십일월오후아홉시경이나되여 동역전에잇는『마두압』운송뎜인부박춘길장소백두사람을무수히싸려일머류혈이 림리한 참극을연출하엿다는데 그후자세한 내용을듯건대 동일오후여섯시에 도착한차로 반성(班城)역에서 온곡물삼십석(三十石)이 북마산역전 마두합(合)운송뎜으로탁송(托送)되야왓슴으로 동뎜

인부들은 날이 어두어운반하기에 불편함으로 곡물을차에서풀어 역압공디에다 로적(露積)을하고밤에수직하기로한후 인부중 박춘길(朴春吉) 장소백(張小伯)이 아홉시경에그곳으로 수직하려갓든바 마츰그곳 이웃녀인들이 와서쌍에흐터진 곡물을씨러감으로 혹로적한 곡물에는 손을대이지안헛나하고 박춘길은동뎜에서 사용하는 등(燈)으로곡물을덥허둔가방을들쳐보든중 그엽집모

일인상뎜 에서 역장도변류길과 동역역부 이삼인으로 더부러가티 술을마시다가 밧게나왓든 산하수치는 불문곡직하고 달려드러수직하고잇는 인부들을싸리다가 산하는 다시좌석으로가티하고잇든 역장도변과 역부들을 다리고와서 또다시싸리기를시작하엿는데역장도변은그곳에잇는 인부들이 마두합인부들인줄을 알면서도 짐짓모르는체하면서 란포하게 싸리며박춘길은일주일간이상의치료를

요할만콤 머리와기타에 타박상을주엇는바심지어싸리고 잇든 현장에잇든 동역역부모일인은 맛고잇는인부가 마두압운송뎜인부임을 증명하엿스나 역장도변은 도리혀 조선사람의편이라하면서 책하엿다는데 그날밤에 마진인부들은 방금진단서를첨부하여 검사국에 고소를데긔하고저한다더라(마산)

二百七十萬圓詐欺에 懲役一年言渡

경도금박왕의사긔사건

경도(京都)금박왕(金箔王)암평오병위(岩邸五兵衛)가대정구년도에 횡빈정금은행(橫濱正金銀行)의신용장을 어더가지고 이백칠십만원사취한 사건에 대하야 작십륙일동경공소원에서 강재판장(岡裁判長)으로부터이년언도가잇섯다더라(동경뎐보)

秋收官의奸計

필경에는실패에

고양군뚝섬면현석리(高陽郡龍江面玄石里) 부호장중환(張重煥)씨의부하에잇는 소위 추수관들이 김포군 군내면(金浦郡郡內面)에서가 진수단으로 소작인들을 쌜아먹는다는 사실은 본보에 이미보도된바어니와요사이 다시그들에 간악한사실을 알아보건대 권긔 장씨의추수관들은해마다배차씨와『조긔』『통치』등을갓다가 일반소작인에게 난호아주고가을타작마당에서벼한말식을꼭꼭바더간일이잇섯슴으로일반소작인들의원성이적지안튼바금년에도또그의추수관들이『배차씨』『조긔』『통치』등을갓다가난호아주고례년과가티벼한말씩을 바더가랴고 하얏섯는데 금년에는 일반소작인에 원청이 더욱놉허가며 따러서 그의무리한사실이 본보에게재됨으로 인하야 그의바라든 벼한말씩은수포(水泡)로돌아가고『배차씨』한봉지에는이십전『조긔』한뭇에는벼한말『통치』한마리에는삼십오전씩을밧는다더라(김포)

十六歲少婦가 媤母毒殺을陰謀

밥에다양재물을석거서 독살하라든사실이발각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답동리(咸南端川郡利中面畓洞里)에사는박창준(朴昌俊)의안해신소아(申小兒)(一六)는 월전시 집을간후로 시어머니와 서로화목지못하야 늘불평을품고 오다가어린생각에 지난륙일 저녁밥에시어머니먹을밥에다 가양재물가두를석거서먹이라고권하다가그사실이 발각되야 단천경찰서(端川警察署)에 인치취됴를마치고지난 십삼일에 일건서류와 함께북청(北靑)검사국으로압송하엿다더라(단천)

不正會社二百餘

모다영업뎡지혹은검거

최근재계의불황(不況)을긔회로 저리자금대부(低利資金貸付)와림시로 자금을 융통하여준다는 명목을 조합(組合)또는 몽롱한회사(會社)를 설립하는 자가만흠으로 동경경시텽(警視廳)에서는 얼마전부터 동경시내각방면에대하야 됴사를한후 의심나는회사는 용서업시 영업뎡지를 명령하엿다는데 오늘날짜지 영업뎡지 또는검거를 당한것이백사십구개소이라더라(동경뎐보)

朔州에賭博流行

여러명이검거되얏다

평북삭주(朔州)에는 날이 점점치워감을따라 밤이 길어질뿐아니라 로동자들은 할일이 적어서 밤이나 낫이나집에들어안저 놀음을하는 폐풍이류행하는 까닭에경찰당국에서는 해마다 겨울철이되면 특별히 경계를하든터인데 금년에는 권에업든대수해로말미암아 실직자가 또한만흔관계로 례년에비하야 한층더도박이 류행하는데 지난십이일에도 삭주군삭주면 남편동목가마에서 오후여섯시부터 오권한시짜지 일회십권식무치고 투권을하다가 본서원이 출장하야본적함경남도 함흥군퇴서리집지함(本籍咸鏡南道咸興郡退西里)金之成(四一)과삭주군삭주면서부동명하복(朔州郡朔州面西部洞明夏福)(三八)과 동군리태운(李泰鑒)(四○)김긔공(金基公)(三四)삭주군삭주면남평동 김인국(朔州郡朔州面南坪洞 金仁國)(四○)동군동면강윤항(同郡同面姜允恒)(四九)을본서에 인치하얏다는바 김지함은 과료삼십원에 처하고그외 오명은 각각이십원식에 처하엿다더라(삭주)

電車投石少年

서대문서에인치

시내현저동(峴底洞)천원관(千元官)의 장남 천수만(千壽萬)(一四)은 십륙일오건 일곱시경에의주통(義州通)일뎡목 구십번디압해서 경성역 방면으로가는백륙호뎐차에 돌을던저 유리창한개를쌔트렷는데 소관 서대문서에서는인치후취됴중이라더라

家屋倒壞로 即死者一名

중경상자네명

경긔도양평군지데면 월산리(楊平郡砥堤面 月山里) 박시동(朴時同)의집에서 신축하든 집이 지난 십삼일 아침 여덜시경에 돌연히 쓰러지며벽바르기에 종사하든 박시동이는 흙덩이에눌리여 즉사하고또그의양자 복성(福成)(一五)과박시희(朴時熙)(六一) 한영석(韓永錫)(四七) 박룡식(朴龍植)등네명도중경상을당하엿다더라

元山大火

손해륙만여원

지난십오일오건네시경에부내천뎡이뎡목이번디(府內泉町二丁目二番地)일본인의경영인 원산극장(元山劇場)에서 불이나서 맹렬한불길은 것잡을사이도업시 풍세를더하야린접한 송촌가차랑(松村嘉次郞)의 집에까지 연소되여 참혹하게도 두집이다 기동을우만 남기고 권소하얏는데 손해는대략 륙만오륙천원가량이라하며 원인은방금 됴사중이라더라(원산)

列車에投石한者

신의주에서수색

십오일 오후한시경에신의주역(新義州驛) 화물취급소(荷物取扱所)압을 데칠십칠호렬차가진행중선로좌측에 돌을 던저유리창한개를쌔트린자가잇는데의주경찰서에서는 범인데포에 로력중이라더라

金堤에不時雨

농가에서는걱정

전북김뎨디방(全北金堤地方)에는지난구일오후부터비가오기시작하야십일까지종일퍼부엇는바 죽산、부량(竹山、扶梁)등디의집호논에는 물이고히어 추수를아즉하지못한 농가에는 손해가몰리어들어 손해도 적지아니하고보리를 뭇지아니한 농가에서는시긔가점점느저감으로파종에 큰걱정거리라고한다더라(김뎨)

青年大衆社支局新設

시내인사동(仁寺洞)팔십사번디 신흥청년사(新興靑年社)에서는 금번에 일본에서출판되는 각종 사회주의서적(社會主義書籍)『리푸렛트』『판푸렛트』등을취차(取次)하고일본 무산청년동맹(日本無産靑年同盟)긔관지『청년대중』(靑年大衆)과좌야학(佐野學)씨 주필인『무산자신문』(無產者新聞)을취급하게되는동시에 권긔청년대중은 그본사와협의한결과조선총지국(朝鮮總支局)으로경영하게되엿고 무산자 신문은 경성지국(京城支局)명의로되어잇스나 그역본사와총지국계약을협의중이라하며 신문 대금은일부에 오전식이라는데 그동안이미두차례나 조선내에배달되엿다더라

面書記兼舍音

소작인의비난이비등

전남순텬군황뎐면서긔허경(全南順天郡黃田面書記許璟)은 금년에 사음이 새로되야 소작인에게못할짓을 한다고 비난이만타는데 이제그내용을들으면지난달말일경에 구례군대디주김택균(求禮郡大地主金澤均)이 황뎐면에와서 소작료를 무리하게탐집함으로 로소작인들은넘우원통하야권부승락하지안코반항하든중권긔허서긔는 김디주를 방문하고사음을어더가지고 그와가티 소작인에게 가혹하게한다는데 그가 사음을 어더할쌔에 김디주에게 대하야 사음을 자긔를주면금년소작료도 매두락에 사오두식더바더줄뿐아니라 종래의 사비가만튼디세 공과금싸지 전부바더 주겟다는 계약서를 하야주엇다는바 일반소작인 사이에는 허서긔에대한비난이자못비등하다더라(순텬)

……생인 리욱래(李旭來)(二四)라더라(대구)

錦山에布木盜竊

중국인상뎜의문을비틀고

전북금산군 금산면중도리(全北錦山郡錦山面中島里) 사백륙십일번디에서 포목상을하는 중국인여진국(余振國)(三三)의집에는 지난십사일밤에 맨발버슨 절도가잠근문의 돌쪽위를 비틀어쌔고들어와서 상뎜에잇는 광목당목(廣木唐木)을합하야홍텰을 훔쳐갓다는데 가격은 약일백삼십여원이라하며 범인은 두사람이상이라 추측되며 아즉데포치못하엿다더라(금산)

安州에牛賊

범인은수색중

지난십이일밤에평남안주군룡화면마산리(平南安州郡龍花面馬山里)홍명려(洪命呂)의 집에서 먹이든소한마리를어떤자가도적하여갓다는데 홍명려는 자긔의소가아니라 안주군대원면협흥리문태홍(安州郡大元面協興里文泰興)씨소를먹이든중넉넉지못한생활에소까지일허사방으로차즈려떠낫스며주재소에서도범인수색에활동중이라더라(안주)

市井雜事

◇四百圓竊盜犯 창성군뎐창면신평동이백륙번디(昌城郡田倉面新坪洞二百六番地)에거주하는원상도(元相道)의차남원민태(元民泰)(一九)는 본시 로동자로 창성에서로동을하는중 지난칠일 오후열두시경에 동거하는강청운(康淸雲)이가 자는틈을타서 가방에서 돈사백여원을 절취한바 강청운이가 즉시경관출장소에 고발한바 범인은즉시데포하야취됴를마치고신의주검사국으로송티되엿다고(삭주)

大邱强盜逮捕

영동려관에서

지나간칠일새벽 두시경에 대구시외 달성군수성면신암동(達城郡壽城面新岩洞) 엄희하(嚴喜河)의집에 단도가진 강도두명이 침입하야 그집사람들을 협박하고 현금이십여원을 강탈도주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대구서에서는 범인을데포코저 엄탐하든바 지난십사일오후에 권긔범인두명이 대구경뎡(大邱京町) 영동려관(永同旅館)에잠복중인것을 탐지하고즉시데포하얏다는바 범인중한사람은 권긔영동려관주인의동생 리만수(李萬守)(二八)로 수월권에 경성형무소로부터 출옥한 강도 권과자이라하며 그외한명은 경남창원군(慶南昌原郡)출

郵便條約改正으로 전보가속달된다

서서국(瑞西國)『스톡크호롬』에서 열린 우편련합의회(郵便聯合會議)에서데결된우편조약개정에의하야종래관세(關稅)를부과하든우편물은엇더한것을물론하고소포(小包)이외에는 보내는도리가 업는 동시에 다른우편물 보다지연되어오든것을 이번부터는 서장(書狀)으로 그중량과 척수에의하야 엇더한 물품이든지서장으로 보내기로 되엇다는데 이러케되면 그료금이 작게드는동시에 비상히 속달되는편리가 잇다는바 이편리가시행되는 나라는 대개독일(獨逸) 북란서(佛蘭西)인도(印度)화란(和蘭)등이십사개국이라더라

휘파람

▲지난십삼일에무장공보교(武長公普校)에서는고창(高敞)여덜공립보통학교련합창가회가잇섯는데출연한아동도조선사람 관람석에도조선사람인데▲창가는 일본말 권용으로하게되고 조선말창가는 순서에씨지도못하고번외(番外)로하얏다고한다자긔의교육잘시킨자랑거리라하면자랑거리로될는지모르겟지마는 ▲관람석에서 듯는사람이 첫재는자미가업서서 군말을하는이가 잇섯고 엇던사람은아심하다고까지하는이가잇섯다자랑이란것이 본래 조흔것이아니지마는 성적이 이러한것도 랑호하다고할는지? 하생이일어참가잘한것은 물론 호성적이겟지마는 련합창가회그것은 비난이잇는이마큼 성적불량 이겟시

假王 【八】

白眼子 譯

내가한참을 잣는지 일년동안을 잣는지 자세히알기는 어려웟스나 깜작놀라깨여본즉 나의얼골로부터 전신이물투성이가 되고 사지가 뎔얼만치되엿스며 내압헤는사대좌가 빙그레우스며 한손에물통을 들고섯섯고 그엽헤는 도련형이가 얼골이하야코 눈추리가 가마귀가티 검은형용으로 세상을모르고 누어잇섯다 나는 뛰여이러스며 『작란도분수가잇지 자는사람에게찬물을 써언지니 그런법이잇단말이냐』하고 책망을하엿더니 『여보말다툼할 여가가업소지금이발서 다섯시인데 술이취한사람을 엇더케 씨우라는말이요』하고 변명을하매 나는아즉도 분이덜풀리어 『내가매우고맙다고하겟소』하엿스나 나의일신은 치워서 견듸기가 어려웟다 그리는틈에 도련형이 일어나서나를향하야 『종보시오』함으로얼골을드러보앗더니 로국왕이 정신을못차리고누어잇섯는데 얼골은 홍도가티붉고 숨을헐덕어엇스나 생긔가업는모양인데 쌔는형적이 도모지보히지아니하엿다 련형이가 『심하는말로』 『뎐하께서 오늘대관식에 가서야할터인데 번시동안을쌔여도 일어나지 안흐시며이일을 장차엇지하자는 말이요』하며걱정을하고사대좌는그말을계속하야 『뎐하께서는 우리보다 삼배나더만히 잡수섯스니 큰변이낫소 암만하여도 큰변이야』 하고 어룰무한이쓰고섯다 나는무릅을꿀코 왕의 맥을집허보앗더니 놀라옵게 맥이약하고더듸뛰엿기로 우리세사람은 서로치어다만보고 엇지할줄을 몰랏다 그런데내가 가만히 생각을하고본즉 그전날밤술마실쌔에 왕이 뭇장으로 술한병을 더갓다가한 서번에 쏙드리켜는것을 보앗던 생각이낫다 그래서 무엇을혹시하게발견이나한듯이 『맨나종에 잡수 신것이 독약이던가보오』하엿더니 『우리는모르겟소』하고 대답을하엿다 그래서 의사를곳청하여보지아니하면 아니 되겟다고 말하엿더니 의사라고는 삼십리안에사는사람이업고설사천명의의사가온다드라도오늘로는서울대관식에 거동하시게하는 재조가업슬것이라고들하엿다『그러면 오늘대관식을 엇지한다는말이요』하고 내가무렷더니 두사람이 머리를 내여두르며엇지할줄을 모르고 묵묵히 안젓슬뿐이엇섯다『그러면 그런말이나 반포를하여야할것이지』하엿더니 사대좌는 닥베를물고 펵펵피우며『오늘 대관식을 거행 못하시면다시대관식을우리뎐하께서는 못하신다고내가장담을하겟소』『엇재그러타는 말이오』『온나라백성이 지금기다리고잇는데 뎐하께서 술이취하여못오신다는 말이야』하는말에 내가 그를보충하는의미로 『미령하시다고는 못하오』 『아니될말이오 그런일이이왕에조금도 아니게섯섯소』 도련형이는다른수단이업는듯이 『국민은 무어라하던지내가그런전갈을할수밧게 업시되엿슴니다 일이야되여가는대로 하는수밧게업지요』하엿다 사대좌는나히스갑을하는듯이 나다려『뎐하께서독약을마신듯하오』하고부르매 나는그러케 생각한다고하엿더니 『그러면 누구가 독약을 드린듯십소』하는말이 그치가 도련에도 련형이가 이를북북갈며 『그놈공작의짓이지요』 『그러치 그래서대관식을방해하려는음모이지 저영국귀족은 우리나라공작이 엇던인물인지 모르시지 련형이 자네는엇지생각하나 공작이룡상에 오를생각이업는듯한가 내가하느님께 맹세를하겟네 뎐하께서오늘 서울도아니가신다면 룡상우에는 공작이안고 말것일세 공작이엇던위인인줄을내가 잘아네』하엿다그말을드른나는 분이나서『우리가써모시고가지』하엿더니『그광경은 볼만하겟는걸일국왕되는이가 술주정군모양으로 실려간다! 그러면전국백성이 무어라 할터이오』하고 그쌔까지쓸데업는 말만하고 잇섯는데 왕은 숨을쉬고 조금도쌔는긔색이업섯다 도련형이는 고만락심이되야 두손으로 얼골을가리우고 업되엿고 사대좌는 그래도조금더쌔여볼생각으로 맹세지거리를하며왕을 흔드러보앗스나 여전히죽은시톄이나 다름이 업시사지가흔들거릴뿐이고 소생할 가망이 막연하엿다 서울에사람이드리밀려잇고 비밀히 드려갈수도업는그쌔에 나는 팔자에업는걱정만하고잇섯다